

사후 외부검토 보고서															
1. 발행자 명	국가철도공단														
2. 외부검토기관	한국신용평가㈜	아웃소싱 기관	해당사항 없음												
3. 작성일자	2026. 03. 26.	현장검증 일자 (필요시)	해당사항 없음												
4. 외부검토 요약															
한국신용평가(이하 "당사")는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기준으로 국가철도공단(이하 "발행사")가 발행한 700억원의 제434회 무보증사채(녹색채권)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당사는 발행사가 제시한 사후(최종)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토대로 본 녹색채권 조달자금의 배분 현황, 조달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 개요 및 환경개선 효과, 그리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적합 여부를 확인하였다. 발행사가 2025년 8월 18일 본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700억원이며, 발행금액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배분하였다. 상기 금액은 전액 배분 완료되어 평가일 현재 미사용 자금은 없는 상태이다. I. 발행 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목 명</th> <th>국가철도공단채권 434(녹)</th> </tr> </thead> <tbody> <tr> <td>채권 표준코드</td> <td>한국거래소 상장, 표준코드 KR352701GF80</td> </tr> <tr> <td>발행 일자</td> <td>2025.8.18.</td> </tr> <tr> <td>발행 금액</td> <td>700억원</td> </tr> <tr> <td>만기 일자</td> <td>2028.8.18.</td> </tr> <tr> <td>발행 금리</td> <td>2.57%</td> </tr> </tbody> </table>				종목 명	국가철도공단채권 434(녹)	채권 표준코드	한국거래소 상장, 표준코드 KR352701GF80	발행 일자	2025.8.18.	발행 금액	700억원	만기 일자	2028.8.18.	발행 금리	2.57%
종목 명	국가철도공단채권 434(녹)														
채권 표준코드	한국거래소 상장, 표준코드 KR352701GF80														
발행 일자	2025.8.18.														
발행 금액	700억원														
만기 일자	2028.8.18.														
발행 금리	2.57%														

II. 자금배분 보고에 대한 검토

1. 지원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 본 녹색채권의 조달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음.

당사가 발행사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자금배분 현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배분은 당초 계획과 중대한 차이 없이 자금배분 완료되었으며, 자금집행 시기와 자금 사용 역시 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젝트 명	호남고속철도 2단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녹색 부문 - 분야: 다. 수송 - 경제활동: (3)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프로젝트 목적 및 개요	- 배경 및 목적: 국제공항인 무안공항을 연결하여 고속철도 및 국제공항 이용객의 상호환승에 대한 이용편의를 증대하고, 무안공항역을 신설을 통해 무안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본 프로젝트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으로, 광주송정~고막원간 기존선(25.9km)을 고속화하고, 고막원~임성리간(44.6km) 구간에 고속철도를 신설하며, 임성리~목포간 기존선(7.3km)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조 274억원으로 본 녹색채권을 통해 700억원을 조달하였다.			
총 사업비	30,274억원		자금조달 비율 (투입금액/총사업비)	2.31%
본 채권 투입금액	700억원			
집행(자금배분)금액	1. 녹색분야	2. 전환분야	집행 비율 (집행금액/투입금액)	100% (자금배분 완료)
	700억원	0억원		
자금배분 완료일	2025.08.18.			
신규/차환	신규 0억원		비율(%) (신규투자금액/자금조달금액)	0%
	차환 700억원		비율(%) (차환투자금액/자금조달금액)	100%

착공, 완공 및 생산일자	착공일 : 2016.12.	준공일 : 2027년 중	생산일(예정) : 진행중
프로젝트 소재지 (국가, 위치)	대한민국,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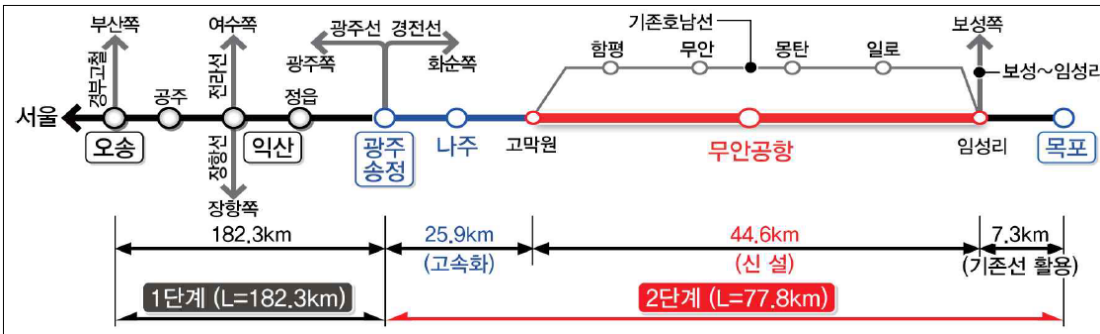
2. 프로젝트 상세 내용 및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한 검토

- 프로젝트 상세 내용 등에 관한 검토 사항

당사는 발행사가 작성한 사후(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개요, 집행내역, 주요일정 등을 검토하였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국제공항인 무안공항과 연결하여 고속철도 및 국제공항 이용객의 상호 환승에 대한 이용편의를 증대하고, 무안공항역 신설로 호남권지역 주민의 교통생활 편의를 제고하며,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3조 274억원으로 사업비의 50%는 국고로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국가철도공단이 채권발행을 통해 자체조달하고 있다. 본 사업은 기존 광주송정~고막원간 25.9km 구간을 고속화하고, 고막원~임성리간 44.6 km 구간을 신설하며, 임성리~목포간 7.3km 구간은 기존선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무안공항역을 신설하여 무안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개요



자료: 발행사 제공자료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국제공항인 무안공항을 연결하여 고속철도 및 국제공항 이용객의 상호환승에 대한 이용편의 증대 - 무안공항역 신설로 호남권지역 주민의 교통생활 편의 제고 및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사업구간	고속화 : 광주송정~고막원 (25.9 km) 고속철도 신설 : 고막원~임성리 (44.6 km) 기존선 활용 : 임성리~목포(7.3 km)
사업비	3,027,380백만원
사업기간	2006~2027년
재원조달	국고 50%, 공단 50%
위치도	
자료: 발행사 제공자료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2006년 8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2016년 12월 기존선 고속화 궤도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용지매수, 노반 및 후속공정에 대한 공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사업 진행 경과 및 계획

일시	내용
2006.08.28.	기본계획 최초 고시(광주송정~목포 신설 건설)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36호
2016.12.	기존선고속화 궤도공사 착공
2021.05.	실시계획 승인(고막원~목포(임성리) 1, 3, 6, 7공구)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90호
2023.05.	실시계획 변경 승인(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20호
~현재	용지매수, 노반 및 후속공정 공사 계속

자료: 발행사 제공자료

'25년에는 노반 공사 등 후속공정을 진행하였으며, 궤도, 건축, 시스템 분야 등의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발행사는 총 사업비 3조 274억원 중 본 녹색채권을 통해 700억원을 조달하였으며, 조달자금을 전액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중 고막원~목포 구간 노반공사 등의 목적으로 집행하였다.

- 세부 자금배분 집행 내역 등에 관한 검토 사항

당사는 발행사가 작성한 사후(최종)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토대로 자금배분 및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구간) 노반 공사 용도로 700억원을 차환 집행하여 발행금액 700억원을 전액 소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평가일 현재 발행금액은 배분 완료되어 미사용자금은 없는 상태이다.

Ⅲ. 환경영향 보고에 대한 검토

1. 환경개선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

당사는 발행사가 작성한 사후(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에 대한 환경개선 기대효과를 검토하였다.

본 프로젝트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철도시설 인프라를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도시철도분야 전기철도시설 인프라를 조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수송인원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사 제시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프로젝트와 기존의 수송수단을 비교하여 인거리(pkm)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산정하였다. 도로기반 차량이용, 항공기 이용, 일반철도 이용 수요를 고속철도(전력기반)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입증받았으며, 발행사는 호남고속철도 1단계에서 검증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에 철도의 거리비율을 고려하여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였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으로 인한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104,311 tCO₂eq. 수준(본 녹색채권 조달금액 투입분이 아닌 전체 사업으로 인한 감축량)이며, **총 투자비 중 본 녹색채권 조달자금이 차지하는 비중(2.31%)를 고려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분은 2,412 tCO₂ eq. 수준이다.**

호남고속철도(2단계) 운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과 산출

구 분	수 치	비 고
① 호남고속철도 1단계 전체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tCO ₂ eq.)	244,421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보고서
② 호남고속철도 1단계(km)	182	
③ 호남고속철도 2단계(km)	77.8	
④ 호남고속철도 2단계 프로젝트 기준 연간 온실가스 감축(tCO ₂ eq.)	104,311	= ① ÷ ② × ③
⑤ 투자비율(%)	2.31%	전체 투자비 중 본건 조달금액
⑥ 본건 조달자금 투자액 기준 연간 배출량 감소분(tCO ₂ eq.)	2,412	= ④ × ⑤

자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보고서(한국표준협회)에서 발행사가 인용

IV.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최종 확인

프로젝트 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문	6대 환경목표	분야	경제활동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녹색	1. 온실가스 감축	다. 수송	(3)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최종(종합) 적합 여부		적합		
	부문	녹색부문		전환부문	
		(100%, 700억원)		-	
	총계	(100%, 700억원)			
현장 방문 (필요시)	해당없음				
주요 의견	국가철도공단이 발행한 녹색채권의 조달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 중 '호남고속철도 2단계' 프로젝트는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로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대중교통(철도시설) 인프라를 조성·운영하므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기대됨. 또한 발행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본 녹색채권 발행 전 기집행한 고막원~목포 구간 노반 공사 용도로 700억원의 발행금액을 전액 집행하였음을 확인함.				
최종 확인	본 외부검토기관은 국가철도공단이 발행한 녹색채권의 해당 녹색프로젝트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상의 경제활동 각 기준(활동, 인정, 배제, 보호기준)이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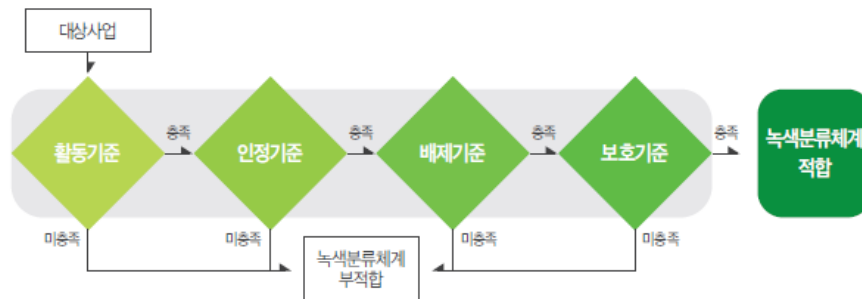
가. 판단 확인 대상

국가철도공단(발행사)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각 프로젝트의 한국형녹색분류체계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 판단 기준 및 절차

당사는 발행사가 제출 또는 공개한 적합성판단 확인서, 공통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확인서,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에 따라 한국형 녹색채권 사후 외부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상 적합성판단은 아래와 같이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충족 여부 판단을 통해 대상사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절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25.12)

다. 판단 확인의 독립성

당사의 녹색채권 외부검토는 당사의 부수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신용평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녹색채권 외부검토는 신용평가 등급과는 전혀 다르며, 또한 별도의 정해진 방법론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녹색채권 외부검토의 결과가 신용평가와 관련성이 있거나 동등한 결과를 보장 또는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녹색채권 외부검토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발행기업과 당사 사이에 이익 상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본관계, 인적관계 등은 전혀 없습니다.

라. 판단 확인의 한계

당사의 외부검토는 당사의 현 시점에서의 의견 표명이며, 해당 녹색채권으로 조달되는 자금의 투입과 자금용도 등과 관련된 관리, 운영 및 투명성 확보의 정도를 완전하게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의 외부검토는 녹색채권의 발행계획 시점 또는 발행 시점에서의 자금의 총당 등 계획 또는 상황을 평가하거나, 미래의 실제 자금투입 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녹색채권이 환경, 사회적 과제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거나, 환경, 사회적 과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녹색채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이 환경, 사회적 과제에 미치는 영향이, 발행기업 또는 발행기업이 의뢰하는 제3자에 의해 정량적, 정성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확인하나, 이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는 당사가 발행기업 및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것입니다. 단, 해당 정보에는 인위적, 기계적, 또한 그 외의 사유에 의해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이든 상관없이 해당 정보의 정확성, 결과, 적확성, 적시성, 완전성, 시장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해서, 일체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당사는 해당 정보의 오류, 위조, 또는 해당 정보를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당 정보의 모든 사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회 손실,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특별 손해, 간접 손해, 부수적 손해, 파생적 손해에 대해서,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무과실책임, 기타 어떠한 책임원인이든, 그리고 해당 손해가 예견 가능한 예견 불가능하든 상관없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아니므로 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적합성 판단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당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확약하지는 않습니다.

유의사항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당사’)가 공시하는 ESG금융 등급은 해당 금융의 ESG 인증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뜻하며, 당사가 발표하는 평가의견 등 리서치 자료(‘간행물’)는 발행사의 장래 계획 준수여부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평가등급과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또한 간행물에는 계량모델에 근거한 위험의 추정치와 관련 의견 또는 키스자산평가주식회사나 Vigeo Eiris에서 발행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는 당사가 발행기업 및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것입니다. 단, 해당 정보에는 인위적, 기계적, 또한 그 외의 사유에 의해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이든 상관없이 해당 정보의 정확성, 결과, 적확성, 적시성, 완전성, 시장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해서, 일체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당사는 해당 정보의 오류, 위조, 또는 해당 정보를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당 정보의 모든 사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회 손실,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특별 손해, 간접 손해, 부수적 손해, 파생적 손해에 대해서,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무과실책임, 기타 어떠한 책임원인이든, 그리고 해당 손해가 예견 가능하든 예견 불가능하든 상관없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의 ESG채권 평가는 평가 대상인 ESG채권과 관련있는 각종 리스크(신용리스크, 가격변동리스크, 시장유동성리스크 등)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사의 ESG채권 평가는 당사의 현시점에서의 종합적인 의견 표명이며, 사실의 표명이 아니며, 리스크의 판단이나 개별 채권, 기업어음(CP) 등의 구입, 매각, 보유의 의사결정에 관해서 어떤 추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 ESG채권 평가는 정보의 변경, 정보의 부족, 기타 사유에 의해 변경, 중단, 또한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당사 ESG채권 평가의 데이터를 포함해서, 본 문서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 ESG채권 평가의 데이터를 포함해, 본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이든 상관없이 무단 복제, 번역, 개정 등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평가등급 및 간행물은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평가등급이나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만 하며, 특정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각 투자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중인 증권 각각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평가등급을 공시하고 간행물을 발표합니다.

당사의 평가등급과 간행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평가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아니므로 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평가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평가등급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목적에 적합하지 여부를 당사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확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어떠한 간접, 특별,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현재 혹은 장래의 손실 당사가 부여한 특정 평가등급의 대상이 아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에 그 같은 손실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던 하더라도,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자신들의 과실(단, 고의 또는 기타 법률상 배제될 수 없는 종류의 책임은 제외함) 또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에 또는 밖에 있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되어,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한 어떠한 직접 손실이나 손해 또는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인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직원을 ESG금융 인증평가 업무에서 배제하며, 이해상충 관리위원회의 운영, ESG금융 평가위원회를 통한 ESG금융 인증평가(결과) 결정 등 ESG금융 인증평가 업무에 있어 독립성을 준수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정책과 절차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 등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복제 또는 재생산, 배포장,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 또는 재판배,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

ESG금융 인증평가일 기준 2년 이내에 ESG 금융 인증평가 계약 이외에 발행사와 체결한 신용평가용역건수 및 수수료 총액은 각각 8건, 126백만원(정기평가 포함)입니다. 당사는 신용평가용역과 ESG금융 인증평가용역 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본부간 물적, 인적, 전산적 분리, 정보차단벽 설치,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